

歲寒然後知松柏之彫

庚戌五月松林暖帳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歲寒然後 知松柏之不彫
 세한연후 지송백지부조
 눈보라 친 연후에야
 잣나무가 이슬지 앓음을 안다

(사)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www.patriot.or.kr | ahnjunggun.or.kr
 TEL. 02) 771-4195, 02) 3789-1016 / FAX. 02-753-5033

大韓國人 安重根 2017 Vol.43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Magazine
 2017 Vol.43



大韓國人 安重根



一. 교육구국운동에 3원을 기부한 사실이 명시된 신문



二. 안 의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대한자강회월보」



三. 대한독립을 열서로 쓴 대국기



四. 사형 집행 당시 입었던 흰색 두루마기(재현)



五. 1962년에 추서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六. 안중근의사기념관

(사)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승모회 / 안중근의사기념관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왕비를 죽였다.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다. 의병과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학살했다. 이토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해친 원흉이자, 죄인이다. 나는 그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이토를 처단했다.”

역사의 무게 앞에 담당했던
도마 안중근,
당신이 정녕 그립습니다.

표지 이야기



웅숭깊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내고자, 안 의사의 행적을 간직하고 있는 5가지 물품에 주목해봤습니다. 교육구국운동에 앞장섰던 한 신문기사. 거시적인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했던 도마 안중근의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소를 거부한 안 의사. 불품없는 수의 한 벌에 고스란히 담긴 그의 신념은 그 어떤 가치보다 빛을 발합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손 떼 문도록 읽고 기억하며, 각인시켰을 대한자강회의 학회지를 필두로 '대한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태극기 위에 자신의 피로 써내려간 안 의사. 그의 삶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노력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안 의사를 기리고 또한 기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大韓國人 安重根』 vol.43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Magazine

발행일 2017년 7월 31일
발행처 (사)안중근의사승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
발행인 이 사 장 김황식
편집인 기념관장 이영옥
편집위원 상임이사 정하철
편집담당 사업과장 장정자·학예과장 이주화
기획·디자인·사진 로직큐브(031-982-5305)

『大韓國人 安重根』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목차

- 04 취임사
김황식 신임 이사장 인사말
- 06 권두언
이영옥 신임 안중근의사기념관장에게 듣는다
- 08 추모시
별이 쓴 필적

안중근을 말하다

- 10 독립운동의 숨결
- 14 위대한 조력자
- 16 그 유물, 그 사연

안중근을 기리다

- 20 도마의 발자취
- 23 그곳에 가면
- 24 문화의 향연
- 25 기념관 방명록
- 26 사람을 이끄는 도마의 열
- 28 도마를 따르다

안중근을 가슴에 새기다

- 30 안중근의 후예
- 32 내 안의 도마
- 34 도마를 그리며
- 37 안중근 꿈나무

- 38 주요 소식
- 40 알림판
- 42 이 한 장의 사진

김황식 신임 이사장 인사말

“安 義士님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사단법인 안중근의사 송모회 이사장을 맡게 된 김황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안重根 義士께서는 비록 31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安 義士님의 삶, 그 자체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 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참담한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대한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으며, 국내외 항일운동이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安 義士님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조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가 분열되고 열강의 침략이 몰려오던 국제정세 속에서 대립과 갈등,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 인류가 평화 속에서 共存共榮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전부를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바치신 安 義士님은 이토 히로부미 처단 뿐만 아니라, 교육 계몽 운동과 의병활동, 국채보상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여순 옥중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보여주셨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송모회는 이러한 安 義士님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이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저도 전임 이사장님들의 뒤를 이어 송모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安重根 義士님의 유해와 유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학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安重根 장학금을 받은 청년들이 安重根 義士의 뜻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도 이제까지의 한·일 양국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혀 이를 통해 安重根 義士가 세계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통한 安 義士님의 고귀한 생애와 평화사상에 대한 교육과 선양사업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발전시켜, 安 義士님의 나라사랑정신과 평화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송모회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謹

김 황 식

“안중근의사는 평화주의자, 그의 사상 세계에 알리고파”

이영옥 신임 안중근의사기념관장

지난 3월,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했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송모회 임원이기도 했던 이영옥 관장이 그 주인공. 향후 3년간 기념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의 구상을 들어본다.



한·중·일을 넘어 영미권에 안 의사의 사상 알려야

오랫동안 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처럼 이영옥 관장은 취임 후 거침없는 행보로 기념관을 지휘하고 있다. 안 의사 관련 UCC 공모전은 물론, 전국 학생 글짓기대회와 안중근 창작발레 공연, 학술워크숍 등이 그를 중심으로 견고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취임 후 100일이 막 지난 시점,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었다.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안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는 쏟아져 나오는데(웃음) 전부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 관장은 얼마 전에 실시했던 UCC 공모전에 대해 언급했다. 『제3회 안중근의사 알리기 UCC 공모전』은 안중근의사와 관련해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확보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주체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숭모하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예년과 달리 영어 부문을 신설했다.

“안 의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시도였으나 꽤나 수준 높은 응모작들이 나오는 등 쾌거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을 자축할 새도 없이 이영옥 관장은 『제1회 글로벌 한국사 워크숍』을 준비하며 다음 앞을 내다보고 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될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중근 학자’로 알려진 미국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학생들과 영미권을 포



“안 의사는 타인의 삶을 배려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춘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안 의사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평화가 오고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안 의사는 동양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강과 평화를 이룩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분입니다. 동양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까지도 한품에 담고 계셨죠.”

이 관장은 세계인들이 안 의사의 훌륭한 데 대해 깨닫고 여론이 형성된다면, 현재 일본의 방해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친필저작들을 돌려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나아가 100년이 넘도록 타국에 잠들어 있는 안 의사의 유해를 고국 땅에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안 의사는 타인의 삶을 배려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춘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안 의사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평화가 오고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안 의사의 사상에 공감하는 세계인들로 새로운 한류(韓流)가 열릴 그날, 이영옥 관장의 행보가 다시금 떠오를 터다.

함한 총 7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안중근의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세계평화를 염원한 ‘한국청년 안중근’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안중근의사 사상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세계평화 위한 길

이 관장의 구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십 수 년간 개최되어 온 『안중근 국제학술회의』의 발제문과 논문 등의 결과물들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현재 출간된 안 의사 관련 서적에 대한 번역사업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향후 안중근의사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길 원하는 전세계인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들을 우선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언어와 문화콘텐츠로서 소통의 활로를 넓히려는 이 관장의 구상은 안중근의사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별이 쓴 필적

저등고 3학년
이하영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물 뒤편
3월이 되면,
빈 자리마다 가득가득 뜨거운 숨결이 차올랐다

문으로 들어서면,
두만강에서 그가 썼던
글씨들이 필적으로 말을 건넨다

나라가 이지러지고 땅이 기울어
남은 세상에, 빛나던 모든 사상들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목소리와 바람마저
더 춥고 낮은 곳에서만 머물고
사람들의 가슴속의 불씨마저도 쏙이 될 때,

고개를 들면,
7개의 별자리가 하늘에 안겨 있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든
별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해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
그와 함께 핏빛 어린 목숨을 세게 되면,
어느 새 대한민국의 산 한가운데 서 있고

문득, 내 발치에 놓인
나뭇가지가
먼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향했다

세 발의 총알로 의사가 꿈꿨던 평화,
그가 자른 손가락 마디 끝으로 풀어진 산자락

뜨거운 바람에 눈이 시리다
의사의 꿈이 유리문 언저리에서 빛난다

안중근을 말하다

- 10 독립운동의 숨결
- 14 위대한 조력자
- 16 그 유물, 그 사연



“동풍이 점점 차가우니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분개히 한번 감이여
만드시 목적을 이루리르다.”
- 1909. 10. 23 「장부가」 중에서



안중근,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 있었던 3가지 결정적 이유

안중근의사가 야욕과 만심으로 한국과 동양의 평화를 막아선 이토를 처단한 하얼빈의거는 수 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총성이 하얼빈 역 일대를 울리기까지 안 의사와 그의 동지들에게는 인내심 깊고 치밀한 준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동양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그날의 현장을 통해 하얼빈의거 성공의 결정적 이유를 파헤쳐본다.

하얼빈역에 올린 총성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쓰러뜨린 안중근의사는 31살의 청년이었다. 1909년 초 엔치아 카리 마을에서 동지들과 단지동맹을 맺은 안중근의사.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정대신 코코프체프와 협상을 위해 10월경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안 의사는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 그 다음날 하얼빈에 도착했다.

오전 9시 무렵, 하얼빈역에 한국 침략의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인 이토를 태운 특별열차가 도착했다. 대기 중이던 코코프체프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열차에 들어가 이토를 영접했다. 약 20분 뒤 이토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코코프체프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려 군악대

와 의장대를 사열한 데 이어 각국 사절단 앞으로 나아가 환대를 받았다.

이때 안중근의사는 러시아 의장대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토를 향해 발사했다. 연속 세 발이 이토를 명중시켰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안중근의사는 만약 쓰러진 자가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따르던 일본인들을 향해 세 발을 더 쏘았다. 안중근의사는 침착하게 이토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꼬레야 우라”를 삼창하고 태연자약하게 러시아 헌병장교 미치올클로프에 의해 포박됐다. 이때가 오전 9시 30분이었다. 이것이 세계를 뒤흔든 사건의 전모이다.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성공 이유는 무엇일까.

의거 성공 요인 01: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

안중근의사는 「동포에게 고함」에서 “한국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간 해외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했다”고 했듯이, 그의 하얼빈의거의 목적은 일본의 침략으로 위협받는 한국독립과 동양평화의 유지에 있었다. 또 안중근의사는 사카이 경시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一身一家를 걸고 우리 한국을 위해 동양의 평화를 위해 결심하고 고국을 떠났다”고 했듯, 그는 부유한 가정의 안락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항일무장투쟁에 나섰다.

안 의사는 법정 진술을 통해 한국인이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일본을 좋아했고, “일본 천황의 뜻도 한국독립을 공고히 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통감 이토는 한국독립을 유린하고 한일관계를 소원케 한 ‘한국과 일본의 역적’이므로 “일본 4천만과 한국 2천만 동포를 위해 거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조를 통해 ‘명성황후의 시해’, ‘한국황제의 폐위’, ‘한국정권의 탈취’, ‘한국군대의 해산’, ‘철도·광산·산림·천택의 탈취’, ‘무고한 양민의 학살’, ‘한국인이 보호정치에 만족한다는 거짓 선전’, 그리고 ‘동양평화의 파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중근의사는 “이토가 존재하면 한국이 멸망하고, 결국 일본도 멸망하며, 동양평화도 깨질 것이므로 이토를 주살한 것”이라 하고, “일본의 정책이 바뀌어 한일 간의 평화가 만세에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처럼 안중근의사에게는 의거 이전부터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조

의거 성공 요인 02: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죄악을 제거하다

안중근의사는 1897년(19세) 1월 부친을 비롯해 숙부, 사촌 등 일가친척과 함께 홍석구(洪錫九, Nicolas Joseph Mare Wilhelm) 신부로부터 세례(세례명: Thomas, 토마스, 도마, 多默)를 받으면서 독실한 가톨릭 종교생활을 시작했다.

1907년, 해외망명을 결정하면서 안 의사는 종교적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고뇌를 하게 된다. 1910년 3월 8일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의사를 첫 면회할 당시를 기록한 홍신부의 회고에 따르면 안중근의사가 해외로 망명하기 직전 아버지 같은 홍 신부와 의견을 달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홍 신부는 “교육에 종사하고, 곁들여 선량한 교도(敎徒), 착실한 국민이 되는 애국계몽운동을 권유”했으나, 이에 대해 아들처럼 ‘절대로 유순하던’ 안중근의사는 “국가 앞에서는 종교도 없다”면서 홍 신부의 가르침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미조부치(溝淵孝雄) 검사가 “피고가 믿는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일 것이다”라는



◀ 사형 집행 전 동생 정근·공근 형제에게 유언을 남기는 안중근의사

심문에 “성서(聖書)에도 살인은 죄악이라 하지만,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소식을 들은 흥 신부는 청계동 성당의 강론에서 십계명을 언급하며 “어떠한 애국심도 살인의 구실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로 법적인 제재행위·정당한 전쟁·개인적인 정당방위 세 가지를 거론했다. 안중근의사는 법정에서 이토를 응징한 것이 독립전쟁의 전투 행위 중에 수행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즉 군인으로서, 나라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의거 성공 요인 03:

최신형 권총과 특수한 총알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의거를 성공시킬 수 있던 데에는 최신형 권총과 특수한 총알의 도움도 있었다.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의거에 사용한 권총은 벨기에 FN사의 M1900 모델로 존 브라우닝의 설계도에 따라 개발한

싱글 액션의 자동권총이다. 생산은 11년 동안 이뤄졌으며, 생산량은 70만 정에 달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자동권총(피스톨)의 대부분이 총열과 프레임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 명중률은 탄창이 회전하는 리볼버보다 떨어졌고 해머가 내장돼 있는 데다 복잡해 조잡한 작동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브라우닝은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한 피스톨을 설계했고, 1897년 이 피스톨의 설계도를 FN사에 넘겨 1900년, 비로소 등장한 것이 FN M1900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의거에 사용한 권총도 바로 이 모델(총번 262336)이었다. 동시대에 등장한 자동권총 중 가장 최신 모델이었던 데다가 구조를 단순화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부피도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 손쉽게 사격이 가능했다. 아쉽게도 현재 안 의사가 의거 당시에 쓴 권총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안중근의사가 이토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한 탄환은 덤덤탄의 일종인 ‘엑스프레소’라고 불리는 특수한 것이었다. 덤덤탄은 19세기 영국이 식민지 인도의 내란 진압용

으로 인도의 공업도시 ‘덤덤’에 있는 무기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탄두 끝에 구멍을 뚫고, 탄알의 외피에 홈을 길게 파서 쉽게 찢어지도록 만들었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나 탄알이 명중하면 보통 탄환과 달리 탄두 내의 부드러운 납이 흘러나와 인체 내에 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상처 부위를 썩게 만들거나 근육 또는 내장에 손상을 주어 사망률을 높이며 회복을 지연시킨다. 이 일종인 ‘엑스프레소’란 이름의 십자 총알은 몸에 맞았을 때 회전을 하면서 살을 파고드는 특징이 있다.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1907년 네



▲ 의거에 사용한 브라우닝 권총. 의거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안 의사의 총기번호는 브라우닝 262336(위)이고, 우덕순의 것은 263975(맨아래)이다

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금지를 결의했으나 미국과 영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보어전쟁에서 영국군이,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이 탄환을 사용했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일제 검사가 동지 우덕순에게 “총알의 십자 모양은 원래 그런 것이냐, 안중근이 만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흔히 파는 것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했다”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일제 재판부는 이미 이런 국제규약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중근의사가 이토를 잔인하게 죽이고자 일부러 총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한국독립과 동양평화의 발판이 된 하얼빈의거

안중근의사가 옥중 심문에 대응해 남긴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개조와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따르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만행과 불의를 하나씩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저지돼야 할 이유를 오랫동안 모색했던 것이 분명하다. 안중근의사는 보호국으로 강제되고 황제가 강제로 퇴위 당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국외로 나가 일본의 만행을 저지, 처단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는 마침내 하얼빈에서 그 기회를 얻었다. 하얼빈의거는 곧 안중근 개인의 오랜 염원의 실현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중근의사가 가진 몇 가지 요인이 의거를 성공시키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그것은 안중근의사가 가진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와 미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거를 성공시킨 신앙심과 담대함, 그리고 당시 최신식 총기와 특수한 탄환의 도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과의 운 / 명 / 적 만남

안중근의사가 동양의 평화를 짓밟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거사를 치르기까지, 가까이서 안 의사와 함께 한 이들이 있었다. 그날 거사의 현장을 통해 조력자들의 행적을 되짚어본다.

「장부가」와 「거의가」로 다진 결의

안중근의사는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정대신 코코프체프와 만나 동양침략정책을 협상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 진공작전 때 함께한 의병 동지 우덕순과 함께 10월 21일 오전 8시 50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다음 날 하얼빈에 도착했다. 중간에 중국 접경 도시인 포크라니치나야(수분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지 유경집의 아들 유동하(18세)를 통역으로 합류시켰다.

23일 오전 안중근의사 일행은 이발을 한 후 중국인 사관으로 가 의거 결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다 그 무렵 하얼빈에 거주하고 있던 조도선을 찾아가 거사 계획을 의논했다. 그날 밤 안중근의사는 의거 결의를 담은 「장부가」를 지었고, 이에 우덕순도

「거의가」를 지어 화답했다. 그들의 비장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수차례의 위기를 뚫고 현장에 잠입하다

안중근의사는 교차역으로 기차가 쉬게 되는 채가구역에는 우덕순과 조도선을 배치하고, 하얼빈역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했다. 유동하에게는 통역과 두 지점 사이의 연락을 맡겼다. 안중근의사는 25일 오전에 하얼빈으로 떠나면서 우덕순, 조도선과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러시아 경비병이 수상히 여겨 우덕순과 조도선이 투숙한 역구내의 여인숙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중근의사가 성공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안중근의사는 25일 오후 1시경 하얼빈에 도착했다.

그리고 의거 당일인 26일, 오전 6시 반경 일어나 양복으로 갈아입고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건 예방을 위해 동양인에 대한 검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은 자국민의 출입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해 안중근의사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역내로 들어가 역구내 찻집에서 이토를 기다렸다. 오전 9시 무렵, 하얼빈역으로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들어왔고 20분 뒤 이토가 코코프체프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서 내렸다.

“모두 나 혼자 한 일ियो”

안중근의사는 러시아 의장대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토가 10여 보(步)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권총을 꺼내 이토를 향해 세 발을 발사, 이토의 가슴과 옆구리에 명중하고 복부를 관통했다. 이토를 수행하던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공내부 비서관 모리 야스지로, 만철이사 다나카 세이지로도 중경상을 입고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이토는 열차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곧 절명했다.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된 안중근의사는 러시아 국경지방 재판소에서 첫 신문을 받았다. 26일 오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넘겨졌다가, 이튿날 여순 관동법원으로 이감됐다. 미조부치 다카오 검찰관은 안중근을 총 11차례 신문했고, 공판은 1919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총 6회 진행됐다. 제1~3회 공판에서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안중근의사는 한결같이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1910년 2월 14일 월요일 제6회 공판에서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징역 3년, 유동하와 조도선은 각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의거 결의 기념사진. 왼쪽부터 안중근의사, 우덕순, 유동하

위 사진은 10월 23일 촬영하여 바로 찾지 못하고 안중근의사가 사형언도 후 동생 정근과 공근 형제 면회 시 유언을 통해 존재 사실이 알려졌다. 안 의사는 “연해주의 백규삼이 보관 중인 ‘대한독립’ 혈서 태극기와 단지한 손가락 등 일련의 유품과 함께 기념사진도 찾아 보관하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범인 심문관들이 알고 먼저 입수해 안중근의사 공판의 전담 언론기관이었던 『만주일일신문』 1910년 2월 4일자에 게재되었다. 📖



▲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우덕순(1879~1950.9.26)

이명 연준(連俊), 호는 단운(檀雲). 출옥 후 북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다가 해방 후 귀국, 1948년 대한민국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했다. 1950년 6·25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처형됐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유동하(1892~1918) 이명 강로(江露). 함경남도 원산 출신, 출옥 후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1918년 조선 독립운동을 지원받기 위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군에 가담,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잡혀 처형당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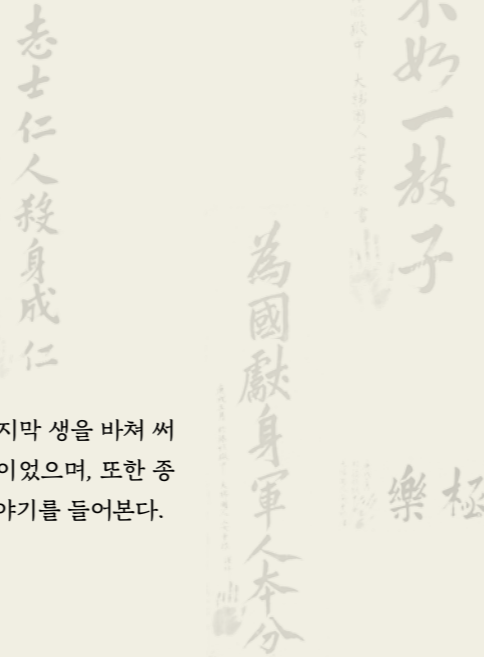
조도선(1879~?)

함경남도 흥원 출신.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안중근 옥중 유묵 同胞에게 誥함

국외소재 유묵 환수기념 특별전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도 포기한 채 마지막 생을 바쳐 써 내려간 옥중 유묵. 이를 통해 사상가이자 교육자였고, 의병장이었으며, 또한 종교인이었던 안중근의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본다.



“나 는 천국에 가셔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로지 나라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대한국민(大韓國人) 안중근. (사)안중근의사숭모회와 기념관은 지난 2016년 안중근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과 관련 자료를 새로이 입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선보이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동포에게 고함 : 안중근 옥중 유묵>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얼빈의 거 성공 후 체포돼 사형을 언도받고도 사상가로서 자신의 올바른 철학과 높은 뜻을 알리기 위한 안중근의사의 의지를 나타낸 유묵 여러 점이 소개됐다.



지사인인 살신성인 (志士仁人 殺身成仁, 191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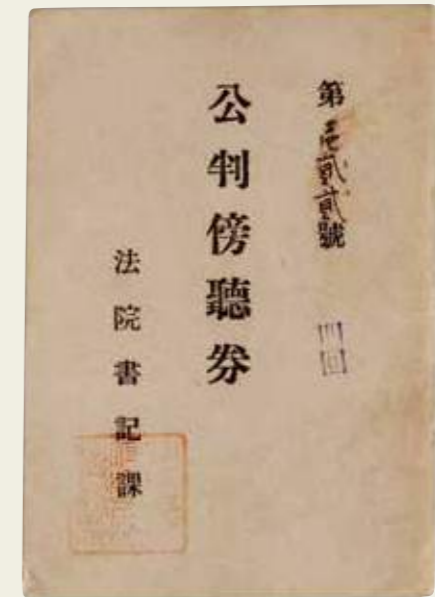
‘지사인인 살신성인’은 지난해 일본인 고마츠 료(小松亮)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이 유묵은 안중근의사의 공판을 취재하러 갔던 일본 고치현 《도요(土陽)신문》사의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가 안중근의사에게 받은 것으로, 그의 후손인 고마츠 료가 가보로 보관해왔다고 한다.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했고 이에 대한 점 후회도 없음을 당당하게 드러낸 글귀를 통해 선비의 곧은 기개와 결연한 의지가 전해지는 작품이다.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安奉線風景附滿洲畫報, 1909년 여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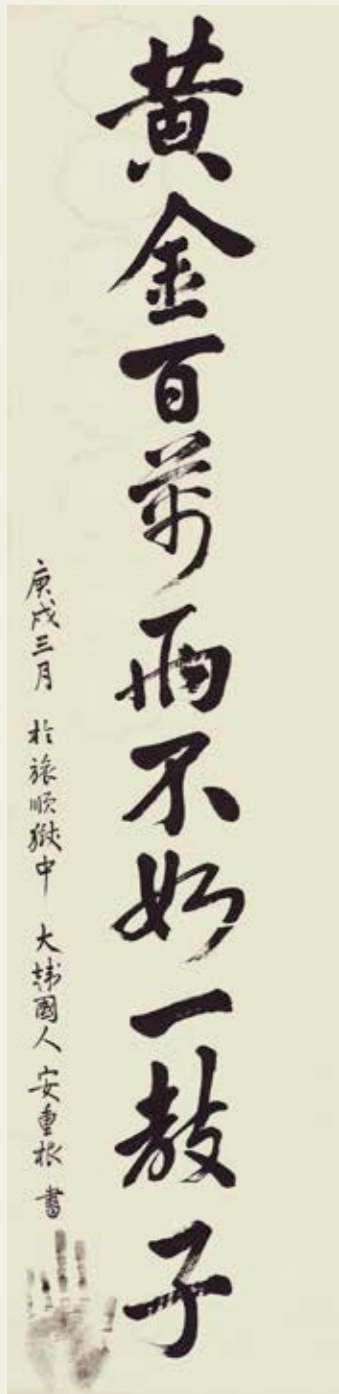
안중근의사의 유묵 ‘지사인인 살신성인’과 함께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가 1910년 2월,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의 공판을 참관하고 그 장면을 직접 그린 삽화가 실려 있는 화첩과 방청권도 기증받아 이번 전시에 선보였다.



▲ 안중근의사 제4회 공판 방청권



▲ 안중근의사의 공판 스케치북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 1910년 3월)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는 2016년 경매를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구입하였다. 이 유묵은 안중근의사가 여순 감옥에 수감됐을 때 감옥 경수계장이었던 나카무라(中村)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사진을 인쇄한 사본이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소장돼 있었고, 진본은 일본에 보관돼 있다가 경매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황금 백만냥도 자식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내림만 못하다'는 내용의 글귀를 통해 사재를 털어 돈의학교를 인수하고, 삼흥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 교육과 교육구국운동에 힘을 쏟았던 교육가로서 안중근의사의 철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안중근의사를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투사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안중근의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써내려간 유묵들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그의 일면들과 마주할 수 있다. 민족의 백년대계를 걱정했던 교육가로서, 문무를 겸비한 선비이자 의병장으로서, 또 하늘의 뜻을 따르 고자 했던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의 일생을 이번 전시를 통해 만나보았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뜻을 담은 유묵을 길이 보존하며 그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교육자 안중근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묵

안중근을 기린다

- 20 도마의 발자취
- 23 그곳에 가면
- 24 문화의 향연
- 25 기념관 방명록
- 26 사람을 이끄는 도마의 열
- 28 도마를 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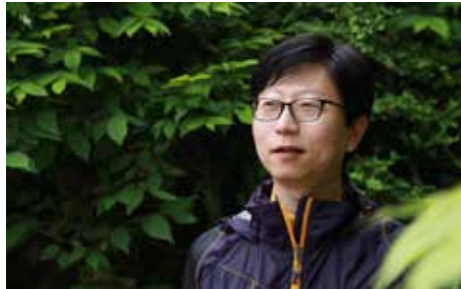


쓴 것은 권총이었지만
그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당신의 손가락이었지만

원수의 가슴을 꿰뚫은 것은
성년민족의 불길이었네
온 세계를 뒤흔든 그 총소리는
노란 하늘의 벼락이었네

- 조지훈, 「안중근의 讚」 중에서

안중근의사 중국사적 답사 후기



안중근 아카데미 12기 수강생들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 교사들, 그리고 서울대 치대 학장 및 치과전문의 제자들로 구성된 총 31명의 답사단이 안중근의사기념관 관계자들과 대련외국어대학교 김월배 교수의 인솔 하에 4일간의 애국 역사답사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대련과 하얼빈 답사에서는 우리나라 항일역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재판과 순국 그리고 유해의 현장으로

대련(Dalian, 大連)에서의 첫 여정은 안 의사께서 재판과 사형선고를 받으셨던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흐릿한 흑백사진으로만 봤던 재판정에 들어서니 이곳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법정투쟁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의 정당성과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던 안 의사의 힘찬 기개가 느껴지는 듯 했다.

안 의사께서 재판 당시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웃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 봤지만 107년 전 안 의사께서 이 자리에서 느끼셨을 심정을 잠시 생각해 보니 절로 숙연해졌다.

법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여순 감옥(관동도독부 감옥소)으로 이동해서 현지 관계자들의 환영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감옥 내부 답사를 진행했다. 여순 감옥은 안 의사를 비롯해 우당 이회영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순

국하신 곳이다. 안 의사께서 순국하신 곳에 섰을 때 가슴 속 깊이 느껴지는 먹먹함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김월배 교수께서 감정에 북받친듯 울먹이는 음성으로 묵념을 제안 하였고, 일행 모두는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평화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머리를 숙였다.

안 의사께서 수감되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감방은 원래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여순 감옥에서 우리 답사일행을 특별히 배려해준 덕분에 감방 내부를 둘러보며 안 의사의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고국의 품을 그리는 유해

안 의사께서는 “유해를 하얼빈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하지만 일제는 안 의사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조차 인도하지 않았다. 10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기록들을 통해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력한 장소인 여순 공동묘지를 방문했다. 야트막한 야산 느낌의 묘지 주변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다. 땅을 파지 않더라도 '지면투과레이더'(GPR) 조사를 통해 유해 장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과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아직까지 GPR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 주변 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 시일이 지날수록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해 발굴이 조속히 이뤄져서 고국과 후손의 품으로 돌아와 평안히 안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여순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거리와 건물을 통해서 과거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여순박물관에는 일제가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보관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1. 여순 감옥
2. 안중근의사가 수감됐던 감방 앞에서 강의하는 김월배 교수
3. 안중근의사가 수감됐던 감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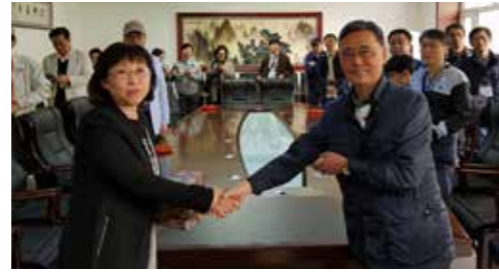
1.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2. 여순 관동법원 재판정

다음 날은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체포되신 현장 답사로 시작했다. 엄청난 부호였던 이회영 선생 일가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 전반에 관여했다. 1932년 11월 만주 주재 일본 총사령관을 처단하려고 대련으로 이동하던 중 대련 항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65세 노구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받아 결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친 숭고한 애국정신이 자유 대한민국의 씨앗이 됐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의 의거현장 하얼빈

하얼빈은 안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역사적인 장소인데, 아쉽게도 하얼빈역 의거 장소는 대대적인 역사 신축공사로 인해 버스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



1. 하얼빈 공원 청초당 유목비
2. 조선민족예술회관 박춘희 관장과 이종경 안중근의사기념관 부관장(사진 왼쪽부터)

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얼빈에서의 첫 저녁식사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틀간의 여정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일행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3일차인 5월 5일 오전에 방문한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원래 하얼빈역 내 의거장소 근처에 있었지만 금번 신축공사로 인해 조선민족예술회관 건물로 옮겨졌다. 기념관 규모가 작고 전시물 역시 많지는 않았지만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이 소중한 공간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안중근의사께서 하얼빈에서 머무르셨던 김성백의 옛 집터를 잠시 둘러보고 하얼빈 공원을 방문했다. 공원 내에는 안 의사가 옥중에서 쓰셨던 '청초당' 유목비가 세워져 있다. 유언을 통해 조국의 국권이 회복되기 전까지 묻어달라고 하셨던 하얼빈 공원은 중국의 항일 영웅이었던 이조린 장군의 유해를 안장하고 동상과 기념비를 세워 현재 조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거사를 치르기에 앞서 공원을 거닐며 거사를 구상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느꼈을 31살 청년의 그 큰 뜻과 결연한 의지가 우리 오천만 국민의 가슴 속에 늘 살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승고한 애국심과 평화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답사기간 내내 김월배 교수의 깊이 있고 열정적인 강의와 이주화 학예과장의 추가 강의를 비롯해 답사를 주최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알찬 기획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일행 모두가 이번 답사를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평생 소중히 간직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동반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 자녀들이 답사의 감동을 품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인천공항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인 대련, 그리고 2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하얼빈. 그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인류의 평화를 외치셨던 안중근의사의 승고한 애국심과 평화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유언하셨던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10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국땅에 외로이 두고 와야 하는 현실에 죄송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다. 유해가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또한, 안 의사의 애국과 평화정신이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도록 나부터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며 주변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식, 그 현장을 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소중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던졌던 안중근의사, 이후 107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뜻을 계승하려는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승고한 정신만은 이 땅에 온전히 남아 있다. 그 추모의 현장으로 가본다.

안중근의사의 승고한 정신과 삶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3월 26일, 오로지 나라의 빛을 되찾고자 싸웠던 한 청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바로 안중근의사다. 비록 30년 남짓 되는 짧은 생은 이미 100년도 훨씬 전에 끝이 났지만 그가 펼쳐온 애국과 평화의 승고한 정신은 계속되고 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민족정기의 상징인 안중근의사의 순국일을 맞아 의사의 애국혼을 추모하기 위한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식'을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국가기관·독립운동 유관기관 단체장·분회 임원·일반 회원·일반시민 등 약 450명이 참석한 이번 추모식에서는 안중근의사의 직계 유족인 황은주 여사(외손녀)와 안도용 씨(증손자)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에서는 안응모 이사장의 추모식사와 내빈 추모사가 있었으며 성악가 양광진·역사청소년합창단의 추모공연, 감사패 수여, 전국 학생글짓기대회·안중근의사 알리기 UCC공모 수상자 시상도 진행됐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 개최된 국제친선교류회에서는 추모식에 참석했던 한·중·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안중근의사 평화사상 선양사업과 관련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감사패 수여자

- 중국 전 하얼빈시 문화부국장 서학동(徐鶴東)
안중근의사 숭모사업에 헌신하고, 한중 우호증진에 기여
- 일본 (재)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아키오(小松昭夫)
- 일본 호세이대 교수 마키노에이지(牧野英二)
안중근의사 숭모사업에 헌신하고, 한일 우호증진에 기여



1. 역사청소년합창단 추모공연
2. 유족, 안응모 이사장의 헌화

발레로 승화시킨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지난 5월 13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안중근의사를 소재로 한 창작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 공연됐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의 주관으로 열린 이 공연은 안 의사의 삶과 그의 평화사상을 다양한 연령층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안 의사가 꿈꾸던 '평화로운 해방의 시대' 그려

안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안중근의사의 일대기를 아름다운 창작 발레에 담은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 그것.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5시와 19시 30분, 총 2회에 걸쳐 열린 이 공연은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모티브로, 안 의사가 희망하던 '평화로운 해방의 시대'를 몽환적인 꿈으로 형상화하고 우리의 현시대를 반성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 공연을 창작한 M발레단의 대표이자 안무가인 문병남과 연출가 양영은은 다양한 구성으로 안중근의사 일대기에서 일어난 사건의 상징성과 극적 긴장감을 한층 부각했다. M발레단의 대표 발레리노인 정영재, 발레리나 김순정, 강미선으로 대립되는 감정선을 극적인 발레의 몸짓으로 담아냈다.



안중근의사 관련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기대감 높여

2회 공연 전체 관람객 중에는 기념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예약한 일반 관람객이 44.9%를 차지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군 장병 초청으로 진행된 낮 공연에는 해외파병을 준비하는 국제평화지원단과 30사단 장병 400여 명이 참석해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향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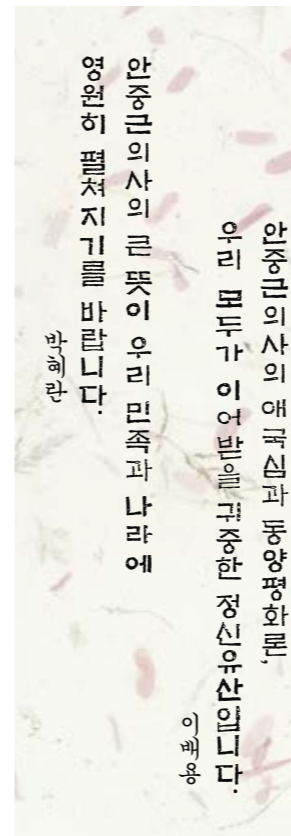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은 사람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한반도 평화 만들 것” 다짐



2017년 3월 1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금주 의원, 윤영일 의원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종경 기념관 부관장의 안내를 받아 안 의사 좌상에 참배 후 전시실을 둘러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계승하여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한 안보와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17년 3월 1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금주 의원, 윤영일 의원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종경 기념관 부관장의 안내를 받아 안 의사 좌상에 참배 후 전시실을 둘러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환담을 나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 기념관 방문 줄이어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신숙원 대통령직속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곽삼근 이화여대 교수
김애실 17대 국회의원
박은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윤수경 전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박혜란 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이사
(가수 이적의 모친)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 헌화 참배 후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안중근의사를 존경한 일본인 다나카 세이지로

“안중근의사가 여순에서 사형된 것은 1910년(명치43년)이다. 내가 13세 때였으므로 당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그분을 잘 알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1922년(대정11년) 5월 평양교외, 승호리에 있던 오노다(小野田)시멘트사의 평양지사에 부임해 그곳 사택에 거주하였다.

안중근의 고택(古宅)은 거기서 4km정도 떨어진 파읍(破邑)이라는 곳에 있다. 가깝지만 내 사택은 평안남도, 안 의사 고택은 황해도이다. 당시 안 의사는 이토공을 살해한 구적(仇敵)으로, 그의 저택을 찾아간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 아주 조심스런 일이었다. 당시 경찰분위기로 볼 때 한국인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였다.

나는 평양지사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사원이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안 의사 고택을 구경하기 위해 혼자서 파읍으로 갔다. 안 의사 집은 남강(南江)이라는 대동강 지류의 왼편 기슭에 있었다. 강가에 닿아있는 완만한 고개의 중간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지 전체가 2백평 정도 될까, 아마도 전평 합계가 30평 쯤 되는 초가지붕의 말하자면 전형적인 조선집으로 그 지방에서는 상류에 속하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세 발의 총탄을 명중시켰다. 당시 안 의사는 대사를 성공시켜야 하는 절박함과 이토에 대한 인상을 정확히 확신할 수 없었기에 순간적으로 정면에 있던 동양인 수행원을 향해 다시 세 발을 쏘았다. 이들 중 한 명인 다나카 세이지로 남만주철도(南滿州鐵道) 이사는 총알이 발뒤꿈치에 박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의 발언을 다나카 세이지로의 후배인 안도 도요로쿠(安藤豊祿)의 글을 통해 옮겨 보고자 한다.

는 저택이었다. 나는 그 후에 다시 한 번 놀러갔다.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해 1922년(대정11) 가을, 평양부근에 백년만의 최악이라는 대홍수가 있어 이 파읍 마을 전체가 유실되었다. 당시의 마을은 지금 전부 강으로 되어있다. 나는 그 동안 한국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한국인들에게 그 집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처지가 되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대선배 중에 다나카 세이지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1872년(명치 5년)생이므로 지금 103세 정도이다. 이토공과 같이 마야구치현 하기(萩)시에서 태어난 도쿄법대 출신으로 그 당시 상당한 엘리트였고, 이토공으로부터 상당히 총애를 받은 수재였다.

그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만철 초대총재일 때 34세로 만주주재 만철수석이사 되었다. 이토공이 러시아 재정대신 코코프체프(藏相, 러시아 제1실력자)를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갔던 1909년(명치42년)에는 만철이사로서 3년 남짓된 37세에, 이토공의 안내역으로서 그리고 불어통역사로서 수행했다. 코코프체프는 이토공의 열차에 타, 다나카씨의

통역으로 최초의 회견을 끝냈다. 이토공이 역두에 내려 다나카씨의 2, 3보 뒤쪽에 있을 때 안중근의 피스톨에 의해 쓰러졌고 그 탄환 한 발은 다나카씨가 맞았다. 다나카씨는 자신이 피격당한 일조차 마음 쓸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총성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토공은 쓰러졌고 지근에 안중근이 서 있었다고 다나카씨가 말했다. 그 때 안중근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 그리고 달려온 헌병과 경찰에게 피스톨에 아직 탄환 한 발이 남아 있음을 주의시킨 태도 등은 그 인격의 고매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대저 다나카씨의 생애를 통해 본 최상 최고의 자태였다는 것이다.

다나카씨는 만주주재 만철 수석이사였기 때문에 당시 시베리아 철도로 일본에 가는 세계 저명인사들을 대부분 만나는 입장이었다. 당시 사람으로서는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국제적 인사들과 친근하게 만났던 셈이다. 또한 유명한 만철조사부를 창설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안중근을 가장 중요해야 할 환경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 다나카씨가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세계의 여러 사람 가운데 일본인을 포함해서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일언지하로 ‘그 것은 안중근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애석하게도...’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 안도 도요로쿠 저서 <한국, 내마음의 고향(韓國わが心の故里, 1984)> 중 ‘안중근은 민중의 마음’ 발췌

안도 도요로쿠의 안중근 관련 기록은 지극히 짧았지만 강렬했다. 안도는 1897년생으로 도쿄대를 졸업하고 오노다



1. 대련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본사
2. 대련남만주철도 주식회사 현재사진
3.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 행렬(1909.11.04.)
4. 장춘남만주철도 주식회사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1922년 이 회사 평양지사에서 일하며 황해도의 안 의사 고향 고택을 두 차례나 방문하며, 지역민들에게 안중근의사의 고택임을 소개했을 정도로 안 의사에 대한 평가와 관심을 가져준 그의 행동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이렇듯 젊은 시절부터 안 의사에 대해 평가해 왔던 안도 도요로쿠는 다나카 세이지로부터 “안중근을 가장 존경한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고, 일본 도쿄에 안중근연구회를 창설해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다 90년 2월에 작고했다.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 의한 안중근의사의 폄하와 망언이 도를 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노리는 듯한 일방적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대 다수의 일본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동양의 평화이기에, 그들의 인식을 바로 하는데 미약하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다나카 세이지로의 왼발 뒤꿈치를 관통한 안 의사의 총알 (일본 헌정기념관 소장)

일본 고치 고마츠 료 선생 생전 아끼던 유묵 기증 후 편안한 마음으로 안중근의사 만나러 천국에...

지난해 11월 안중근의사의 옥중유묵 「志士仁人 殺身成仁」을 비롯한 화첩과 공판 방청권의 자료를 아무런 조건 없이 쾌히 대한민국(안중근의사숭모회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기증했던 고마츠 료(小松亮) 선생이 안 의사 순국 107주기를 하루 앞둔 2017년 3월 25일 저녁 숙환으로 별세했다.

와병 중 유묵 기증의사 밝혀

안중근의사가 생전에 남겨놓은 유물들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어 되찾기가 쉽지 않다. 안중근의사 숭모회(기념관)가 유물 발굴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11월 유묵 등을 기증한 고마츠 료 선생은 종조 부인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의 사후 이들 자료를 소중히 간직하며 일본 내에서 안중근의사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으나 그간 유묵의 한국으로의 기증에는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교류를 통한 진정성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오랜 와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기증의사를 통보했다. 이들 자료는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 까지 속개된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안 의사 공판 당시, 매회 방청을 하며 공판과정을 스케치했던 일본 고치현 도요신문사 통신원 고마츠 모토고(小松元吾)가 일본으로 귀국하며 갖고 간 자료들이다.

유묵 기증 계 기로 지속적인 친선교류 의사 밝혀

얼마 전 안 의사의 옥중유묵과 그 외 자료들을 기증한 고마츠 료 선생(향년 92세)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선생의 사망시점이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행사를 하루 앞둔 때였기에, 장례식 참석을 미루어 오다 지난 6월 12일 정하철 상임이사와 이혜균 사무국장 이故 고마츠 료 선생의 자택을 방문해 장남 내외에게 조의를 표하고 생전의 약속이었던 유묵 등 자료의 복제본을 기증한 후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번 방문에는 안 의사 유묵의 한국으로의 기증을 위해 노력해 준 호세이(法政)대학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교수와 현지 향토 사학자 구몽코(公文豪) 선생 내외가 동참했다. 이들은 “유묵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도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와 친선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했다.



▲ 왼쪽부터 정하철 상임이사, 고인의 장남 고마츠 유타카(小松裕) 내외, 이혜균 사무국장, 호세이대 마키노 에이지 교수, 고치현 향토 사학자 구몽코 전 의원

안중근을 가슴에 새기다

- 30 안중근의 후예
- 32 내 안의 도마
- 34 도마를 그리며
- 37 안중근 꿈나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거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
미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흠뻑뻑 만세를 부를 것이다.”

- 1910년 3월 9~10일 안중근의사 최후의 유언

미래의 안중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는

제2회 청소년 역사탐방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청소년역사탐방』을 실시했다.

매월 다양한 구성으로 흥미 유발한 프로그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국사 교육이 나날이 축소돼 가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훗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렸던 『제2회 청소년역사탐방』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한편,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치러지는 이번 역사탐방은 매월 주제를 달리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4월은 <남산 일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와 국내 의열투쟁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조선신궁 터가 있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시작으로, 경술국치의 현장이었던 통감관저 터와 한국통감부, 조선 총독부 터에 이어 조선헌병대 사령부 터였던 남산 한옥마을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5월은 3·1만세운동이 있었던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배포처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 개벽사 터, 승동교회와 태화관 등을 돌아 일본대사관 앞 소녀의 상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6월에는 <정동길과 대한제국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대한제국과 원구단 일대의 역사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시청 광장, 정미의병 발원 터,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을 돌아보았다.




참여 청소년들

“역사 바로 알고 큰 교훈 얻는 시간” 한 목소리

이번 『제2회 청소년역사탐방』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체험 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역사전공 현직교사가 진행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탐방 자료집을 제작해 학생들의 탐방활동과 현장 토론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탐방을 마치고 작성한 소감문에서 “우리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유익함과 동시에 미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애국하신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

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달리 역사의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배우니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들도 알게 되었고 큰 교훈을 얻고 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등 다양한 소감을 적어냈다.

이번 역사탐방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근대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앞으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님을 기억하는 방법



천안상업고 3학년
최은지 학생

한 사람의 일대기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장 잘 각인시켜주는 방법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머릿속에서 긴 영상을 재현하고, 노트에 내용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과목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근현대사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을 제 머릿속에서 그려냈습니다. 제가 위인들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래희망인 소설가답게 수필을 쓰거나, 극본을 쓰거나, 시를 썼습니다. 또 인형 등을 만들어 제 삶 속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위인들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안중근의사에 대한 저만의 경험들을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안중근의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였다. 성장하면서 학문보다는 말타기, 사냥 등에 관심을 보였고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 신자가 되어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1906년 을사조약 체결 후 상점을 팔아 학교를 설립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1910년 3월 26일 위순(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이렇게 몇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전 형식으로 안중근의사를 배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만났습니다. (중략)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가기 전 여유롭게 일찍 나가 저는님을 찾습니다.님은 오늘의 싱그러운 햇빛과 어젯밤 이슬로 인해 더욱더 경이로워졌습니다.저는 오늘도님을 보며, 기억합니다.님에게 어제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늘 보고,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야기할 거리는 한 보따리입니다. (중략)

천안역에서 광복절 기념으로 사진 전시회를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예전의 대한민국은 정말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우리나라는 백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또 가난에서도 벗어났습니다.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현재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빛나지 못하고 사라졌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딱 맞춰 도착했지만, 아직 나온 친구는 없습니다. 늦잠꾸러기 친구들을 기다리며

저는님을 생각합니다. 십 분 정도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입니다. (중략)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허름한 카페에 가 겹겹이 쌓아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최근에 유행하는 증강현실(AR) 게임을 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눌러 담고 헤어집니다.

버스를 타기 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트에 들어섭니다. 장바구니에 요구르트를 담고, 믹스 커피를 담고, 파를 담고, 닭 한 마리를 담습니다. 버스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경거리가 많은 마트를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어느 한자리에 딱 멈춰 섭니다.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지나칠까요. 그곳은 식물 코너였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들어선 저는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으며,님을 떠올립니다. 지갑을 열어 남은 용돈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식물 영양제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맴돌다가 얼마 남지 않은 버스 시간을 보고 허둥지둥 계산을 합니다.

따뜻했던 마트에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그새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버스를 타자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아까의 여유롭던 버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어폰으로 가립니다. 그래도 따듯한 체온들이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곧 내려야 할 정류장에 도착하고, 저는 성큼성큼 집으로 향합니다. 다만 집으로 들어가기 전님을 찾습니다.

어둑어둑한 밤 아래에서도 빛나는, 남들 눈에는 그저 강낭콩으로 보일 나의님. 저는 안중근의사를 제 삶 속에서 각인시키기 위해 식물을 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자라는 식물을 보며 저는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

로지 저만의 방법입니다. 영양제를 흙에다 꽂고 또 한참을님과 시간을 나눕니다.님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은 너무나 달콤하여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언의 대화를 나누다 어머니의 전화가 와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저는 우물쭈물 둘러댔습니다. 어머니와 따듯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기 전에 책을 펴니다. 손때가 많이 탄 책은 제 노력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안중근의사는 순국 직전 동포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여한이 없겠노라.]

현재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G20에 가입하는 등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안중근의사의 원대한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저는 상업계열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과 자격증을 관리하며 학업과 실업 장려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는 얼마 남지 않은 자격증 취득 시험을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기만 한 스탠드 불에 의지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나?”라는 말에 떳떳하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깨닫고, 공부하며님을 기억합니다.



최우수상
이영주
임정현
권남혁

“많은 이들이 안 의사의 업적 알아가기를”

Q. 이번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A. 여러 공모전을 살펴보던 중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주요 업적을 재연을 통해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 영상을 통해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영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과 협조한 사람들을 소개해주세요.

A. 저희 셋은 대학교 시절 함께 교내 방송국 생활을 한 선·후배 사이로 이번 영상 제작의 모든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사 역을 맡아준 윤지용 배우님, 조 마리아 여사 목소리 역을 해주신 임은정 성우님을 비롯해 여러 지인분들이 재연영상 촬영을 도와주셨고 그 외에도 의상·장소·장비 지원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영상제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수상
인하대 양형석
인하대 김민중
서강대 이호성

“국내·외 젊은 세대들에게 안 의사의 평화사상 알리고파”

Q. 이번 공모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가 만든 ‘덱석’이라는 팀은 비주류를 주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웃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관심을 가지게 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천하고 있지 않는 역사에 관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안중근의사 공모전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참가했습니다.

Q. 작품 의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젊은 세대들에게 안중근의사의 삶과 평화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재밌어야 영상을 시청하는 국내·외 시청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기념관을 투어하고 시민 인터뷰도 하는 콘셉트로 제작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영어와 한글자막을 추가해 여러 국적의 시청자가 함께 시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념관에 대한 소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 의사의 업적과 지금 시대 무관하지 않아”

Q.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요?

A.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업적들과 지금 시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영상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혼돈의 시기였고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시기적절하게 안중근의사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전달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한 소망도 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에 친구들과 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이고, 안중근의사 공모전을 통해 역사에 많은 관심이 생겨 역사 관련 콘텐츠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편집실력·촬영·기획이지만 더욱 연습하고 많이 만들어서 구독자 만 명을 넘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웃음).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라 동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장려상
성신여대 박소현

“평화사상이 안 의사의 삶 꼭 기억해야”

Q.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A. 이 영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저희는 저희 시각에서 이해하는 안 의사에 대해 주변 친구들과 외국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영상을 담아 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안 의사의 업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안 의사의 많은 업적과 특히 옥중에서 쓰신 유묵의 의미를 알리고 싶었고, 평화사상이 안중근의사의 삶의 바탕인 애천(愛天)·애족(愛族)·애인(愛人)정신을 꼭 기억하고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전쟁을 경험한 전쟁세대도 아니고, 식민지 통치세대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안 의사 같은 훌륭한 분들의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애국심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상
중계중 오채린
을지중 이에린
영훈국제중 최수진

※ 그외 장려상 한림대 윤창영 / 장려상 권동균



운문 대상
저동고 3학년 이하영 학생

독자에게
올림 전해지길 바라 ”

독자에게 존경의 올림, 이해의 올림, 부끄러움의 올림이 전해지길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안중근의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쓸까 생각하던 중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필적이었습니다. 필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느낀 안중근의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이 읽고 싶은, 오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글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문 대상
천안상업고 3학년 최은지 학생

안 의사에 대한
진솔한 삶의 경험 담아 ”

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논리 정연하게 쓴 글도, 영혼 없이 치장만 한 글도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제 삶이 담긴 작품이고, 안중근의사를 향한 제 사랑이 담겨있던 수필이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안중근의사의 뜻을 이어받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 <제15회 학생 글짓기 대회> 수상자

구분	부문	성명	소속
대상	운문	이하영	저동고 3학년
	산문	최은지	천안상업고 3학년
최우수상	운문	변영진	공군항공과학고 3학년
		이평화	의왕중 1학년
		박현우	청주 진흥초 6학년
	산문	나예빈	안양예고 3학년
		하연서	창녕여중 3학년
		오재호	서울한산초 4학년
우수상	운문	김은혜	충남 삼성고 3학년
		정도한	강원 원주중 1학년
	산문	이재원	행신초 1학년
		정진서	서울 이대부고 2학년
장려상	운문	신채린	울산 옥동중 2학년
		최영우	창원마산 월성초 2
		양예리	김해 울하고 2학년
		김현서	청송여고 1학년
		한서진	인도 Podar international school 8A
		이서희	불암중 1학년
	산문	윤도완	수미초 6학년
		박시우	서래초 4학년
		정보비	중국 칭다오제2중학교제부12학년
		이정주	중산고 1학년
		이준엽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8학년
		김수연	고척중 1학년
가작	운문	김주형	수원 효원초 6학년
		강서희	서울고척초 5학년
		고지형	모락고 3학년
	산문	신은우	경산여중 2학년
		정지원	예산초 3학년
		박원빈	태안여고 2학년
지수민	16세		
김예원	미국 Don Callejon School 5학년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오롯이 느끼다

안중근체험교실



광복 70년이 넘는 지금, 아이들에게 나라의 소중함과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의사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기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안중근체험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 의사의 업적과 생애를 가르치고 있다.

재미있게 놀면서 안 의사의 생애와 업적 체험

“선생님, 제 책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의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난 5월과 6월에 열린 안중근체험교실에서는 안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팝업북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다소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팝업북 만들기’를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 팝업북을 완성하기 위해 몰두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안중근의사의 삶과 업적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달의 체험교실에 참석한 아이들은 팝업북 만들기 체험이 재미있다고 엄지를 꺾으며 동양평화론과 안중근의사의 유언 등 안 의사가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의 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매달 1회 진행되는 안중근의사기념관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역사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생각하면서 습득하는 활동 프로그램에서부터 직접 만들고 구성해보는 창작 프로그램까지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는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4월에는 ‘안중근 의사와 남산 성곽 둘레길’을 주제로 기념관과 성곽 둘레길의 유적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안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제1차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시이사회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지난 6월 16일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및 명예이사장·고문 추대 안건을 상정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제10대 본회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안응모 본회 전 이사장을 명예이사장 겸 고문으로 추대 의결했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 안중근의사 제107주기 추모식



▲ 윤영제 상임고문, 김여탁 이사장, 뉴욕총영사관 김윤정 동포담당 영사, 대한민국광복회 뉴욕지회 유진희 부회장이 현화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지난 3월 27일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뉴욕 동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의사숭모회 뉴욕지회(이사장 김여탁) 주관으로 안중근의사 제107주기 추모식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안중근의사께서 ‘나라를 되찾으면 나의 뼈를 조국으로 옮겨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지금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후손들에게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교육으로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유해를 찾기 위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만세’ 삼창으로 추모식을 마쳤다.

순국 107주기 추모식 및 제3회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회

지난 3월 4일 쿠퍼티노에 있는 퀴란커뮤니티센터(Quinlan Community center)에서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주관, (사)안중근의사숭모회 후원으로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식 및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회가 있었다.



▲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신재현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내외, 새크라멘토 한인회 회장, 북가주 전 광복회회장, 몬트레이 문화원 원장, 안중근의사 증손자 토니 안과 사촌형제들, 그 외 이 지역 단체장들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중근의사의 뜻을 이어 평화

에 대한 염원을 담아 만세 삼창을 불렀으며 타국에서도 한국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실시한 ‘제3회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 추모식 후 참가자들 기념 촬영



안중근의사 숭모사업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2017년 6월

법인 임원

곽동걸, 곽삼근, 김경희, 김대현, 김상옥, 김항식, 민남규, 박귀언, 서영득, 안경오, 안근배, 안봉락, 안영기, 안영홍, 안완기, 안용석, 안재성, 안진근, 안호택, 유상준, 윤현주, 이상림, 이영옥, 이우식, 이원태, 이인실, 장성훈, 蔣賢云, 정지욱, 정하철, 조동성, 한규택

특별·일반회원

특별회원

30만원 이상

강태희(30만원), 김정탁(신,30만원), 손은진(신,30만원), 유승희(신,30만원)

일반회원

20만원 이상 안재관(20만원), 황민재(21만원)

10만원 이상

고재신(10만원), 김범상(10만원), 김종수(10만원), 박혁서(10만원), 안광웅(10만원), 안재식(10만원), 양동완(10만원), 양정성(신,10만원), 이철호(10만원), 전중갑(10만원), 진영배(신,10만원), 허성열(12만원)

5만원 이상

김명규(5만원), 김성규(신,5만원), 김수겸(5만원), 김장규(9만원), 김지형(5만원), 박기선(5만원), 배금원(5만원), 안세현(7만원), 안은녀(5만원), 유영수(5만원), 이국하(신,5만원), 이선아(신,5만원), 이태호(5만원), 전대홍(5만원), 정백동(신,5만원), 조정숙(신,5만원), 한은현(5만원), 홍영숙(신,5만원)

3만원 이상

강중구(3만원), 김광수(신,3만원), 김미겸(3만원), 김민지(3만원), 김석진(신,3만원), 김용삼(신,3만원), 김인상(신,3만원), 김종진(신,3만원), 김종필(3만원), 김태정(3만원), 김학수(3만원), 박상순(신,3만원), 박채환(3만원), 서예준(3만원), 안광순(3만원), 안동현(3만원), 안문영(3만원), 안봉희(3만원), 안상록(3만원), 안성관(3만원), 안승현(3만원), 안영수(신,3만원), 안준길(3만원), 안충모(3만원), 안현갑(3만원), 양미(3만원), 양정호(3만원), 여정호(신,3만원), 윤철남(3만원), 이병복(신,3만원), 이상훈(3만원), 이진호(3만원), 이창영(3만원), 장세진(3만3천원), 장정자(3만원), 전태수(3만원), 조재춘(3만원), 최광국(3만원), 최숙남(3만원), 최숙희(3만원), 최진(3만원), 한옥동(4만원), 한승용(3만원), 허은경(3만원), 홍세범(3만원)

평생회원 <누적 100만원 이상>

권영호, 권오성, 김대현, 김승기, 김애실(신,100만원), 김월배, 김유일, 김윤자, 김재영, 김종남(신,100만원), 김주태, 노수문, 문원상(신,100만원), 박덕현, 박병환, 박상규, 박인호, 박한지, 박현수, 박홍순, 백의웅, 백주용(신,100만원), 서홍우·한춘희(신,50만원), 선우영석, 선주영(25만원), 손봉석(35만원), 손인춘, 신길현, 신현재(신,100만원), 안근준, 안기영, 안덕주, 안세준, 안용식, 안종일, 안종채, 안지현, 안희돈, 양정호, 양창선, 유명옥, 윤종구, 이강녕, 이강연, 이경림, 이기선, 이담(신,100만원), 이동춘,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100만원), 이수광, 이수진(신,30만원), 이용훈, 이우진, 이응열, 이정홍, 이혜균, 이호(신,100만원), 장재덕, 전중갑, 전진근, 정재호, 정준영, 정지욱, 정하철, 최석진, 최을호, 최재승, 최진일·여수진, 최인훈(신,100만원), 한성일, 황덕호, 황은주, 황치봉, 高橋公純(다카하시 고준)

외국인 (단위:만원)

鹿野元 가노 겐(5만엔), 山川曉 야마가와 코(1만엔), 千葉英樹 치바 히데키(1만엔), 高橋龍壽 다카하시 다츠히사(3만엔), 高橋龍洋 다카하시 다츠히로(3만엔), 高橋智雲 다카하시 치운(3만엔), 高橋千華 다카하시 치카(3만엔), 高橋智那 다카하시 토모나(3만엔), 高橋智由 다카하시 토모유키(3만엔)

특별 후원금 (단위:만원)

(주)호텔롯데(700만원), 안영홍(200만원), 박현수(150만원), (주)진흥안전관리(70만원), 서울삼청로타리클럽(30만원), 귀자모리스(30만원), 일본 史談會 사담회(1만엔), 이영선·이영애(1만5천원), 강호열(1만원)

기념관 추모실 헌화

신길현, 육사 75기 동기생 일동, NICE 이상근 사장,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

기념관 후원 (단위:만원)

김영탁(6만원), 김윤경(3만원), 박소정(4만원), 박효진(6만원), 배소영(1만8천원) 신철호(20만원), 안경민(15만원), 이수진(6만원), 이연조(12만원), 이장노(1만8천원), 조성태(6만원), 최은경(6만원), 최정은(6만원), 문미경(20만원)

안중근사랑(숭모) 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Tel) H.P)	e-mail
자택주소	(우)	
직장주소	(우)	
직장명	직위	
가입동기/ 추천인		

※ 회비 납부방법은 CMS 자동이체 또는 본인이 직접 입금 하는 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등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CMS 자동이체	①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10,000원
	② 특별회원	<input type="checkbox"/> 월 3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0원
	③ 희망금액	<input type="text"/> 월 원	
※ 연 합계금액 60,000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에 한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 회원계좌 : 은행명 / 출금계좌번호			
※ 매월 27일 자동 출금 (27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			

계좌이체 ※ 본인 직접 입금	① 일반회원	연 60,000원
	② 특별회원	연 360,000원
	③ 평생회원	1,000,000원 (1회에 한함)
● 납부계좌 : 농협 097-01-17428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우리은행 009-177521-01-00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귀중

주 소 (04636)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문 의 Tel) 02-771-4195,6 Fax) 02-753-5033
e-mail patriot1909@gmail.com
홈페이지 http://www.patriot.or.kr

※ 회비납부(계좌이체 포함)시 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마리아 여사 회갑 기념사진 - 음력 1922년 4월 8일, 러시아 니콜리스크 -



▲ 둘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조마리아 여사

자식 모두를 독립운동의 투사로

조마리아(趙瑪利亞, 趙姓女) 여사는 1862년에 황해도 해주군에서 배천 조씨(趙燾)와 원주 원씨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조마리아는 순흥 안씨 안태훈(安泰勳, 1862~1905)과의 사이에 안중근(1879~1910), 안성녀(1881~1954), 안정근(1884~1949), 안공근(1889~1939) 등 3남 1녀를 낳았다.

큰아들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 한국독립운동의 금자탑을 쌓았고, 둘째 아들 안정근은 북만주에 난립한 독립군단을 통합시켜 청산리전투의 기반을 확립했다. 셋째 아들 안공근은 백범 김구의 한민 애국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를 빛낸 윤봉길과 이봉창의 항일의거를 성사시켰다. 딸 안성녀는 안중근 의거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

국으로 망명해 손수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었다. 아들이 임정의 요인으로 활약하는 동안, 조마리아는 니콜리스크에 머물렀다. 그녀는 1922년 4월 니콜리스크에서 동포들의 환대를 받으며 회갑잔치를 치렀다. 그 이후 상해로 이주했다.

국외 망명 후 임시정부를 후원하다

1926년에는 안창호가 상해 동포들을 규합해 임시정부를 위해 경제후원단체인 '상해재류동포 정부경제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조마리아가 위원에 선출된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임정에 기여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조마리아는 1927년 7월 15일에 향년 66세로 별세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17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

제13기 안중근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요강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12월 19일(화) 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1강좌 3시간)
- **교육비** 50만원(강의자료 및 석식 제공, 국외 안중근사적지 답사비 별도)
- **교육장소** 안중근의사기념관 세미나실
- **모집인원** 30명
- **모집기간** 2017년 7월 17일(월) ~ 선착순 접수
- **문의** 안중근의사기념관 (T.02-3789-1016, 1026)

2. 교육내용

차수	일자	주제	강의 제목	성명	소속
1	9/5	개강식	기념관 소개 및 전시실 관람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
2	9/12	근대사 개관	한국 근대사의 시련과 극복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3	9/19	안중근의 생애	안중근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
4	9/26	국외 항일투쟁	연해주에서의 안중근	박환	수원대 교수
5	10/10	하얼빈의거	하얼빈의거의 배경과 의의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6	10/18~21	국외 답사	국외 안중근의사 사적지 답사(중국 하얼빈·여순 등)		
7	10/24	법정투쟁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서영득	법무법인 총무 대표 변호사
8	10/31	동양평화론	동북아 정세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장(숭실대 명예교수)
9	11/7	유묵	필묵으로 보는 안중근의 사상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부장
10	11/14	신앙과 가문	안중근의 신앙과 가문의 독립운동	오영섭	연세대 연구교수
11	11/21	연구의 성과와 과제	안중근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철호	동국대 교수
12	11/28	보훈의 역사	보훈의 역사와 문화 (안중근의사에 대한 보훈정책 포함)	김종성	전 국가보훈처 차장
13	12/5	특강	안중근의사의 구국활동 특징과 역사적 의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14	12/12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수강생 전원
15	12/19	수료식			수료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